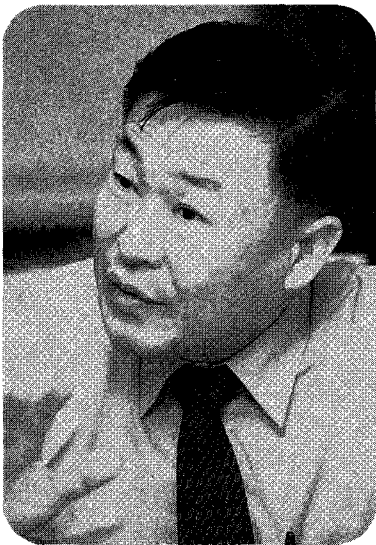


##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발로 뛰는 경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국내 최대 발전 전문 회사의 초대 사장으로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어 오신 소감은?

정부의 전력 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한전에서 분할된 6개 발전 회사 중 국가 전력 공급의 주력 전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한국수력원자력(주)를 이끌게 되어 양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항상 최선을 다하자는 일념으로 회사 경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부지 선정 사업의 추진과 신규 원전 추가 건설의 차질 없는 수행 등 산적한 경영 현안 해결을 위해 수많은 단체들을 방문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등 동분서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발로 뛰는 경영’을 실천해 나갈 생각이며 이를 통해 한수원(주)가 세계 최우수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국내의 원전 운영 능력은 국제적인 원자력 안전 전문 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지금까지의 운전 실적이 또한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원전 기기·부품 수명 관리,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 원자력 우수 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 원전 안전 종합 대책을 실행하고, 또한 인적 실수로 인한 발전소 사고를 방지하고자 국내 원전 특성에 맞는 인적 행위 개선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 회사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발전 전문 회사로 출범한 한수원(주)는 현재 혁신적인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하고 공기업 형태의 비능률적 관행들을 과감히 버리고자 회사 출범 단계에서 사내의 모든 제도·관행·의식에 대해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 원가 절감 등 18개의 경영 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사 내 모든 조직과 업무를 정보 기술로 통합, 실시간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한 전자적 자원 관리 시스템 도입, 회사 설립 초기 시점에서 기존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한 조직·인력 진단, 환위험 관리 지침 제정과 환위험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환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최근 우리 회사는 한국기업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에서 실시한 기업 신용 평가에서 최고 등급 "AAA" 등급을 각각 획득하였는데 이는 신생 회사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자산 규모 19조, 부채 비율 98.7%를 자랑하는 한수원(주)의 이번 최고 신용 등급 획득은 회사의 대외 신인도 제고는 물론, 향후 신규 원전 건설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전 부문 경쟁 체제 전환에 따른 원전의 경제성 제고에 대한 대책은?**

발전 부문이 6개의 발전 회사간 경쟁 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우위 확보가 발전 회사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회사에서는 전직원이 동참하는 '발전량 1kWh당 비용 1원 절감'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영개선위원회의 주관하에 원가 책임 관리 체제의 도입을 통한 상시 원가 절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발전·건설 등 해당 본부별로 원가 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2002년부터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 운영을 통해 10% 이상의 구매 원가 절감은 물론, 모든 거래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회사가 지향하고 있는 Clean Energy & Clean Company도 이룩해 나갈 생각입니다.

**평소 인간 존중의 경영 철학으로 매사에 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조직이 성립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문화는 그 조직의 정체성과 효율성의 정수가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기업 문화의 정립이 일류 회사의 밑거름이라는 인식하에 회사 구

성원들간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중이라는 '인본주의'를 기업 문화의 요체로 삼고 모든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원 위주의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전 현장 직원들의 완벽한 건강 관리를 위해 일반 산업장 종사자와는 차별화된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인 「통합 검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 검진 시스템이란 원전 소재 사업장별로 전담 주치의와 간호사를 지정하여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인 정밀 검진을 시행하는 한편 이것을 데이터화 하여 계속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원전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물론 원전 종사자의 병력 관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가능케 함으로써 원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발전소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현재 올진 원전에 수영장·볼링장·대형 수족관 등 종합 스포츠 센터를 신축하여 금년 말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역 주민도 함께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공존 공영하는 풍토 조성에 기여코자 하며 향후 전 원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부지 공모 추진 결과 및 향후 계획은?**

지난 1986년 5월부터 정부 주도로 안면도·굴업도 등에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부지 확보를 추진하였으나 지역 주민과 반핵 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정부와 원전 사업자인 우리 회사는 과거의 실패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고 시대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부지를 공모한 결과 금년 6월 말까지 영광군 등 7개 지역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유치 청원이 제기되었으나 유치시 지역 주민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자체에서 모두 반려하고 말았습니다.

다목적댐·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성 시설에 대한 대책 사업이 NIMBY·NIMTOO 현상으로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현실속에서 10년 넘게 미결로 남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부지 사업의 공모에 다수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유치 신청(영광 및 강진 지역의 경우 유권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한 것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유치 노력과 지속적인 현지 방문을 통한 설명 등에 대한 신뢰감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 주민들이 부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나 기초 의회가 뚜렷한 명분 없이 단지 군민 화합을 저해한다는 이유만으로 모처럼의 신선한 민심을 외면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공모에 의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자 주도 방식에 의해 부지 유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자 주도 방식이란 사업자가 후보 부지를 선정한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최종 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원전 부지 확보 절차와 같이 「전원 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지를 선정하게 됩니다(적격 부지 선정 → 부지 조사 → 지정 고시). 한수원(주)에서는 투명한 최적 부지 선정을 위해 외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적격 후보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사업자 주도 방식 추진에 적합한 홍보 마스터 플랜도 수립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될 사업자 주도 방식은 후보 부지 선정 절차의 객관성 및 합리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부지 선정 방식으로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력 산업 분할 이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현황은?**

원자력 발전은 현재 총16기를 가동하여 국내 총발전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2000년 1월 확정 공고된 제5차 장기 수급 계획에 따

르면, 2015년까지 총12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여 2015년에는 총26기가 가동될 예정입니다(고리 1호기는 2008년 4월, 월성 1호기는 2013년 4월에 폐지될 계획임).

먼저 현재 건설중인 호기를 살펴보면 영광 5·6호기가 2002년 4월과 12월 준공 예정으로, 울진 5·6호기는 각각 2004년 6월과 2005년 6월을 준공 예정으로 하여 한창 건설중에 있습니다.

영광 5·6호기와 울진 5·6호기는 각각 설비 용량 100만kW급 가압수로형으로서 기존의 울진 3·4호기를 참조 발전소로 하여 선행 호기 운전 과정에서 제안된 설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안전성·신뢰도·보수성 향상 등을 한 단계 더 높인 최신훈 발전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5차 장기 수급 계획에는 신고리 1·2·3·4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총8기가 건설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20015년에 원자력 발전은 국내 총발전 설비의 33%, 총발전량의 약 45%를 담당할 것입니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국내의 원전 운영 능력은 국제적인 원자력 안전 전문 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지금까지의 운전 실적이 또한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원전 기기·부품 수명 관리, 실시간 감시 체제 구축, 원자력 우수 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 원전 안전 종합 대책을 실행하고, 또한 인적 실수로 인한 발전소 사고를 방지하고자 국내 원전 특성에 맞는 인적 행위 개선 제도(HPEs : Korea Human Performance System)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경우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제성 확보는 무의미하다는 인식하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 의식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